



7 단계 : 하나님의 모습을 빚어가는 사람들 : 하나님의 나라와 영성

“십자가의 영성”

고전 1 : 18 - 25

2010. 11. 3 (수), 11. 6 (토) 강사: 박원호 목사 (주님의교회 담임)

1. 바른 영적인 틀 : 영성은 우리의 삶과 존재 전체를 포함.

육신적인 생활도 포함하면서(성숙을 모두 포함) 동시에 인간의 존재 전체
(지, 정, 의)를 품을 수 있는 영적 틀(spiritual framework).
(교회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잘못된 영성들이 다가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_____을 입으신 하나님, _____의 하나님.

1)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 :

불가능한 이상과 부적절한 _____을 가지기 때문.

2) 바른 영성의 기초 :

_____에 기초해야하며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_____을 제공 함에 기초함.

오늘날 기독교 영성이 로마 교회 영성을 따라감.

개신교 영성이 없다고 말함은 잘못이며 _____영성이 있음.

2. 인간이 갖는 세 가지 영적인 갈망과 문제점들

1) 행동의 완성을 추구하는 _____(moralism)

2) 이해의 완성을 추구하는 _____(Mind)(speculation)

3) 하나님과 하나되기 위함을 추구하는 _____(신비주의 mysticism)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다름.

3. 기독교 영성

1)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성에 직면하는 것으로 시작함.

우리는 완전한 행동도, 이해도, 하나님과 하나됨도 이룰 수 없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 모두를 우리를 위해 해 주심.

2) _____에서 우리와 하나되며

_____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심.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필요가 없음. 하나님이 내려오심.

대부분의 철학은 구원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관심을 가지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심.

3) _____ / _____이 개신교 영성의 중심

4) 기독교 영성의 강조 :

모든 인간적 노력은 무익함. 초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심.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심. 영적인 삶은 하

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즉,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오늘도 성령

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을 인정하는 것.

4. 영성의 구조 : 율법과 복음, 회개와 그리스도 영접

1) 기독교 영성은,

율법과 복음으로써 의지의 도덕적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지적인 소망을 이루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간과 하나되시는 하나님에 초점.

2)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자기 의, 자기 안전을 도전하심.

복음, 즉,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적인 용서를 발견함.
이로써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개방함.
이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됨.

믿음은 인간의 지식도, 의지도 아님.

이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써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창조하신 행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우리는 매일 율법에 의해 부워져야 하며,
복음에 의해 새로워져야 함.

3) 영성의 결과 :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먼저 내적인 변화를 경험함.
우리에게는 두 개의 본성이 갈등을 겪음.
그러나 기도, 고백, 말씀과 성례를 통해 거룩함으로 성장함.
영성이란 정지된 축복의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기쁨과 아픔의 역동적인 진동(oscillation).

5. 은총의 수단들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_____ 전 _____ 에서!

1) 우리의 구원은,

행동에 의해서나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모든 벌을 당하심.
 주님의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죄가 물러가고 다시 태어나심.
 이제 성도는 예수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생을 은총을 누림.

2) 객관적 의(objective justification): 2000년 전 일어난 사건.

그러나 그 의가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침.

주관적 의(subjective justification): 이는 믿음으로 이루어짐.

믿음이 지식도, 의지도, 감정도 아니라면 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임.

3) 은총의 선물들 :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 성찬

가)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총의 수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

나) 세례와 성찬 : 이를 통해서 복음의 전달됨.

	십자가 신학	영광의 신학
강조		적극적사고, 성공 번영
인간의 근본	죄인	선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	절대 필요	별 필요없음, 스스로를 구원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	내가 원하는 하나님
고난	삶과 신앙의 중심, 더욱 하나님을 의지	없어야 함, 저주의 상징
고난받는 사람	일치함	차별하거나 멀리함
사명	사명이 중심	사명보다는 자기 축복



6. 십자가 신학 The Theology of the Cross과 영광의 신학 The Theology of Glory

1) 많은 영성서적들이 “_____”을 다루고 있음.

적극적 사고 방식, 요가, 명상....

2)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 :

존재의 변화에 관심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를 원하느냐?

아니면,

존재는 그대로 두고, 잘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느냐?

아니면 사람의 능력을 강조하느냐?

3) 이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나?

자아에 강조를 두며,

자아 실현, 자아 성공, 자기 독립을 위함.

이들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하며 영적인 독립과 자족감을 얻으려고 함으로

영적인 삶을 통제하도록 함.

따라서,

스스로의 성취와 업적을 얻기 위해 율법의 종교와 영광의 신학을 원함.

4) 영광의 신학 :

치유와 성공을 약속함.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이 없어야 한다고 믿으며, 모든 댓가를 치르더라도

고난을 피하려고 함.



하나님은 고난이나 불행과는 관계가 없다고 믿음.

고난은 오히려 저주의 상징으로 여김.

기독교인은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받아선 안된다고 가정함.

하나님은 치료와 성공과 번영의 하나님이라는 가정임.

문제점 : 실제로 해답이 아님.

5) 십자가의 의미 :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의 삶을 원하심.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왕이 아니라 목자로 사셨음.

대중에게 인기도 없었고 비난받고 집도 없이 사셨음.

(사 53장)

우리도,

주님처럼 훗날에는 영광스럽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함.

십자가의 신학이,

더 실제적이고 진실하며,

영적으로 역동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형성함.

가. 십자가의 신학은

고난 자체를 영적인 깨달음의 수단이라고 말하지 않음.

십자가의 신학은 금욕주의가 아님.

즉, 육신에 고난을 더함으로 영적인 만족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님. 금식, 괴로움, 자기 해침들은 고통은 가지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영광의 신학을 말함.

십자가는,

결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님.

이는 오히려,

우리가 원치 않는 것임.

외부에서 우리에게 강요되는 시련이나 어려움들을 말함.

나. 일상적인 삶에서 다가오는 좌절,

예를 들어, 환자의 병과 같은 것이 아님.

십자가의 신학은,

결코 고난에 대해 쉽게 답을 주거나,

나쁜 일은 성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음.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겨지는 고통.

이는 위대한 성자들에게 주로 다가옴.

루터의 대답은,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함.

왜냐하면,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고 말함.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임.

따라서 모든 시련들은 바로 믿음을 실천할 기회들.

다. 고난은,

우리로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

고통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믿음의 행위요 은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순간임.

라.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의 십자가 신학이란?

시련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

성화는 쉬운 과정은 아님.

실패, 거짓, 위선, 의심, 이기적 교만,

육신의 은밀한 죄 등이 교회에서 항상 일어남.

루터 : 옛 사람과 새 사람 간의 갈등.

우리는 비록 새 성품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옛 죄악의 본성은 남아 있음.

새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야 함.

죽을 때,

이 갈등이 사라질 것.

7. 소명 (Vocation)

아버지직, 농사, 노동, 군인, 상인....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들(Masks)

일상적 삶의 신비주의(mysticism of ordinary life)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크게 높여주심.

일은 영적인 삶에 결정적임.

우리의 존재는 일과 직결되어 있음.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와 세상을 함께 다스림.

영적인 세계는 말씀 성례를 통해 다스리시며,

세상은 직업을 통해 다스리심.

소명이란?

영적인 일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도 말함.

의롭게 되는 것은 선행과 무관함.

그러나 직업은 선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짐.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이 필요하시지 않지만 이웃은 필요함.

루터 : 금욕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식들,

개인적인 도덕적 성향은 선행이 아님. 이는 이웃에게 도움이 안됨.

결혼은 소명으로써,

서로를 돌보는 것.

직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써,

개인의 자질, 기술, 성향에 따라서 허락하심.

직업에도 십자가의 신학이 역사함.

때로 시련이 다가옴.

사탄은 우리의 직업을,

십자가의 신학이 아니라 영광의 신학으로 바꿈.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거나 또는 직업, 가정, 자녀 양육 등에서 떠나게 함.